

싸바이다(안녕하세요)?

주의 백성들이 사는 땅 라오스에서 문안 인사드립니다.

보내주시는 사랑과 응원에 힘입어 1년 중 가장 무더운 4-5월을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곧 시작될 시원한 우기철을 기다리며 라오스 소식을 전합니다.

딘디학교 리모델링 공사

몇 년 전부터 딘디학교 초등학교를 위한 교실을 건축하기 위해 기도해왔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되면서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선택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물 1-2 층의 좁은 공간들 사이의 벽을 허물어 초등학교 기준에 맞는 크기의 교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 심사도 더불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교육부의 실사단이 학교를 방문해 시설물을 점검하고 허가 여부에 관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리모델링 공사가 순조롭도록 그리고 교육부의 초등학교 허가가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이전에 나올 수 있도록 두 손 모아주세요. 또한 리모델링과 허가 과정에 필요한 재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펴냈습니다.

2014년에 시작된 라오스 지역연구회(이하 라지연)가 이번에 14번째 책인 『라오스의 출입국 외국인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간했습니다. 그동안 라오스에서 추방당한 한국인 사역자가 모두 4명인데, 추방의 유형과 그 이유는 각각 다르지만, 4명 모두 라오스 정부의 외국인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추방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기 위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추방을 예방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라오스의 법률을 들여다보고 그 내용들을 한국어로 번역할 필요를 느껴 이번 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함께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라오스의 종교법과 라오스 1990년 헌법도 포함되어 있어 라오스의 이모저모를 함께 볼 수 있는 귀한 자료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현재 라오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인 사역자는 물론 장차 라오스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을 소망합니다. 아울러 라지연이 라오스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되도록 두 손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차이나를 위한 365 중보기도

지난 해 라지연이 중심이 되어 ‘인도차이나 지역연구회’(이하 인지연)를 설립하였습니다. 유사한 문화와 종교를 갖고 있는 인도차이나 5개국(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에 사역하는 한국인 스무사람들이 공통된 관심분야를 함께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책으로 발간하자는 취지로 이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인지연’의 첫째 사역은 『인도차이나를 위한 365일 중보기도』라는 책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1년 동안 인도차이나 5개국을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365개의 다양한 분야의 국가정보와 함께 그 정보에서 추출한 기도제목을 실습니다. 독자들은 이 책자를 통해 1년간 인도차이나 5개국에 대한 정보습득과 함께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해 9월 초 출판을 목표로 5개국에 속한 10여명의 연구위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해보는 일이기에 뜻밖의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위로부터 구하며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지연의 초대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게 하늘의 힘과 지혜 그리고 리더십을 허락해주셔서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두 손 세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2번째 졸업식

딘디유치원이 오는 5월 23일에 제22회 졸업식을 갖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딘디유치원에서 함께 생활한 10명의 원아들이 졸업할 예정인데, 이 중에는 일반 학교에서는 적응하기 어려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자폐증을 갖고 있는 원아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교사경건회 시간마다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담당 교사들 역시 헌신적으로 보살피며 가르쳤기에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9월 새로운 학기에 딘디초등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10명의 졸업생들을 포함한 90여명의 모든 딘디학교의 학생들이 더욱 지혜롭게 건강하게 자라 장차 라오스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쓰임 받도록 두 손 모아 주세요.

한국을 방문합니다.

다음 달 6월 11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아버지(91세)께서 지난 해 폐암 말기 판

정을 받으셨는데, 의사 소견으로는 올 여름을 넘기시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대전의 한 노인요양원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뵙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곧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기쁨 중에 영원한 안식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중보기도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8일

라오스의 차명열, 이순아 올림

아 름 제 목

1. 딘디초등학교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순조롭게 하시며, 공사기간 단 한 명의 작업자. 교직원, 학생들도 다치지 않게 하소서.
2. 리모델링 공사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건물 실사를 오는 교육부 담당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초등학교 허가를 기꺼이 내주게 하소서.
3. 인도차이나 지역연구회가 진행하고 있는 ‘인도차이나를 위한 365 중보기도’ 책자 제작 과정이 순조롭게 하시며, 이 책자를 통해 인도차이나를 위한 구체적이고 힘 있는 기도가 모아지고, 인도차이나 5개국의 영적 흐름을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게 하소서.
4. ‘인도차이나 지역연구회’를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저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리더십을 부어주소서.
5. 폐암 말기인 아버지께서 죽음의 두려움 너머에 있는 천국의 소망으로 고통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 품에 평안이 안식하게 하소서.
6. 한국 방문의 모든 일정이 은혜롭고 안전하게 하시며, 풍성한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